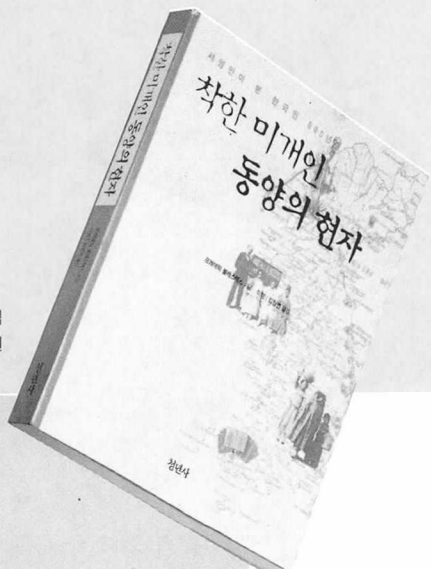


허구 위에 세워진 허구

프레데릭 블레스텍스의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를 읽고

조한욱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 책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남긴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국의 모습을 엮어나간다. 지은이가 입증한 '은둔의 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는 프랑스 사람들의 피상적인 관찰에 근거한 허구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런 허구를 도식화시키고 이를 현대 한국에 대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씩씩한 뒷맛을 남긴다.



김정연 외 옮김
청년사/A5신/336면/12,000원

프랑스 사람들이 이미 13세기부터 한국에 대한 기록을 남겨왔고 아베 프레보, 볼테르, 기욤 아폴리네르와 같은 문호들의 저작 속에 한국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경험이다. 이 책의 지은이인 프레데릭 블레스텍스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남긴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국의 모습을 엮어나간다.

타자의 눈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는 허구적

13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을 단지 '먼 나라'로 인식했다. 18세기에 이르르면 그들은 한국을 '착한 미개인'과 '동양의 현자'라는 양면적이며 피상적인 이미지로 인식한다. 한반도가 외교적으로 개방되는 1880년도부터 그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성격, 풍속, 종교, 교육, 예술 등에 대해 서술하기 시작하지만, 이 시기에도 한국은 '은둔의 나라' 혹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어떤가? 지은이는 과거의 이미지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논한다. 남한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쳐 새로운 차원의 표상으로 자리잡지만, 북한은 '은둔의 왕국'이라는 이미지로 재구성됐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흥미롭긴 하지만 뭔가 씩씩한 뒷맛을 남겨주는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몇몇 일간지의 서평을 살펴본 뒤 그

씩씩함은 더욱 커진다. "이 책의 출간은 좁게는 한국학, 특히 '한국성'을 규정하는 데 내용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하나의 학문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더 일반적으로는 한국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거울이 될 것"이라는 박이문 교수의 발문의 취지를 따르듯, 우리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책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투의 논평은 적어도 내게는 석연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실상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왔던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라는 이미지는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하며 지은이 역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볼테르의 작품 속에서 한국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한국에 대한 '상상력' 속에서만 존재한다. 문호가 개방된 이후 한국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정치가, 여행가, 성직자 등등의 기록 속에서도 그런 피상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은둔의 왕국' 혹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미지는 프랑스 사람들의 피상적인 관찰에 근거한 허구일 수 있다.

허구의 이미지를 도식화시켜

그렇다면 한국학을 전공하는 프랑스 학자로서 지은이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허구를 불식시키는 작업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히려 그는 그런 허구를 도식화시키고 현대의 한국을 그것에 대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허구 위에

허구가 쌓여 조선과 북한을 '은둔의 왕국'이라는 수사로 묶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잘못) 봐왔으니까 한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야" 하는 시각이 이 책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에 이 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집필된 것인지 결코 명확하지가 않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의 시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려고 조언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거울이 될 것"이라는 논지가 결코 석연치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가지 명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책을 통해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한국 방문을 마치고 출국할 때, 한 기자가 한국의 통일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묻자 그의 대답은 "한국의 전문가에게 물으시오"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왜 이 책을 읽으며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것일까? '극장의 우상'은 언제나 존재해왔던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